

졸전 끝 조 3위 추락...운명에 맡긴 32강

남아공에 충격패...또 '경우의 수' 28일 끝나는 조별 결과 지켜보아 32강 가도 조 1위 상대 가시받길



한국 축구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를 마치기도 갈 곳을 모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5일 열린 조별리그 A조 마지막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패했다.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두고 산뜻하게 대회를 시작했으나 멕시코에 0-1로 패한 데 이어 남아공에도 일격을 당했다.

1승 2패 (2득점 3실점)로 승점 3을 얻는데 그친 한국은 3전 전승 (승점 9)을 거둔 멕시코와 1승 1무 1패의 남아공 (승점 4)에 이은 조 3위로 내려앉아 자력으로는 32강에 오를 수 없게 됐다.

참가국이 32개에서 48개 나라로 늘어난 이번 대회에서는 네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 2개국에 조 3위 중 상위 8개국을 더해 32개국이 토너먼트로 우승 경쟁을 이어간다.

홍명보호는 이제 32강 진출을 위해 다른 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마저도 멕시코 덕분에 가능했다.

한국이 남아공과 맞붙은 시간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멕시코가 체코에 승리 (3-0)했기 때문에 조 3위라도 조 32강 진출을 엿볼 기회를 얻은 것이다.

만약 체코가 멕시코를 눌러 1승 1무 1패가 됐다면 한국은 아예 조 4위로 내려앉아 곧바로 짐을 싸 운명이었다.

이제 홍명보호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날까지 12개 조 3위 중 한국은 4번째다.



25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 한국 선수들이 남아공 타펠로 마세코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조별리그를 모두 마친 곳은 A-C, 3개 조다.

이중 B조 3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승 1무 1패, 5득점 6실점)는 승점 4로 한국보다 위다.

하지만 승점이 같은 C조 3위 스코틀랜드 (1승 2패 1득점 4실점)에는 골득실 차에서 한국이 앞선다.

보스니아는 32강 진출도 확정됐다.

이미 A, C조 3위보다 승점이 많은 데다 남은 조에서도 최소 세 팀보다는 순위가 앞설 수 있어서다.

I조에서는 나란히 2패 (승점 0)를 거둔 3위 세네갈과 4위 이라크가 맞대결할 예정이라 누가 이겨도 3위가 승점 3밖에 올리지 못한다.

D조는 2위 호주 (2득점 2실점)와 3위 파라과이 (2득점 4실점), J조는 2위 오스트리아 (3득점 3실점)와 3위 알제리 (2득점 4실점)가 모두 1승 1패 (승점 3)인 상황에서 맞붙는다.

2, 3위 모두 승점 4를 기록하려면 비기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3위 팀은 보스니아에 골득실 차에서 밀리게 된다.

한국은 이제 남은 9개 조 3위 중에서 최소 세 팀에 우위를 점하면 32강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조별리그 최종전을 남겨둔 D-L조에는 이미 승점 3을 거둔 팀도 네 팀이나 된다.

D조 파라과이, F조 스웨덴, J조 알제리, L조 크로아티아가 나란히 1승 1패로 승점 3을 쌓았다.

G조 벨기에와 H조 카보베르데가 2무씩으로 승점 2를 얻어 뒤를 잇는다.

2연패로 아직 승점 1도 챙기지 못한 I조 세네갈조차 이라크와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조 3위로 32강 진출을 노려볼 수는 있다.

조 3위 팀 중 승점이 같을 땐 골득실차-다득점-페어플레이 점수-FIFA 랭킹 순으로 우열을 가린다.

한국은 32강에 오르더라도 조 3위에서 가시받길 걸을 가능성이 크다.

오는 30일 미국 보스턴에서 E조 1위가 확정된 독일 또는 7월 2일 미국 시애틀에서 G조 (벨기에, 이집트, 이란, 뉴질랜드) 1위와 맞붙어야 한다.

/연합뉴스

순위	팀	승	무	패	득점	실점
1	멕시코	3	0	0	6	9
2	남아프리카공화국	1	1	1	-1	4
3	한국	1	0	2	-1	3
4	체코	0	1	2	-4	1

차수	날짜	시간	팀 1	결과	팀 2
1차전	6월 12일	04:00	멕시코	2:0	남아프리카공화국
		11:00	한국	2:1	체코
2차전	6월 19일	01:00	체코	1:1	남아공
		10:00	멕시코	1:0	한국
3차전	6월 25일	10:00	체코	0:3	멕시코
		10:00	남아공	1:0	한국

두산戰 '설욕의 중심' 황동하가 있다

오늘 선발 특명...지난달 첫 선발 맞대결 승리 재현 도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우완 황동하가 다시 중요한 임무를 맡는다. 황동하는 28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과의 주말 3연전 첫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KIA는 올 시즌 두산과의 상대 전적에서 4승 5패 열세다. 최근 광주 홈 3연전에서도 워닝시리즈를 내줬다. 설욕이 걸린 시리즈다. 3위 삼성을 추격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황동하가 있다.

올 시즌 그는 16경기에서 6승 1패 1홀드, 평균자책점(ERA) 4.14를 기록 중이다.

5차례 퀄리티스타트(QS)를 작성했고 58%이닝 동안 40개의 삼진을 잡았다. 피인타율은 0.261, WHIP는 1.38이다. 승률은 0.857이다.

2024시즌에 거둔 개인 최다승(6승)을 이미 넘어섰다. 데뷔 후 통산 12승 가운데 절반인 6승을 올 시즌 마쳤다.

이제는 KIA 국내 선발진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했다.

상승세는 더욱 뚜렷했다. 시즌 초에는 불펜에서 시작했다. 4월 말 선발 기회를 잡았고 기대에 부응했다. 5월에는 5경기에서 4승 무패, 평균자책점 1.48을 기록했다. 30%이닝 동안 자책점은 단 5점 뿐이었다. 5월 리그 평균자책점 1위다.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한 달이었다. 월간 MVP 후보에 오른 것도 당연한 결과였다. 다만 최근에는 다소 주춤했다.

6월 들어 3경기에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4.97이다. 롯데전에서는 3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다. KT전에서도 3%이닝 4실점하며 긴 이닝을 책임지지 못했다.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산은 상대로는 3경기에 등판해 1승, 평균자책점 5.87을 기록했다.

시즌 초 두 차례 구원 등판에서는 흔들렸다. 하지만 지난달 첫 선발 맞대결에서는 6이닝 3실점으로 승리를 따냈다.

이번 선발 등판에도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KIA가 두산전 열세를 끊기 위해서는 그의 호투가 절실하다. 긴 이닝을 책임져야 불펜 부



26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과의 경기에 선발로 출격하는 황동하. <KIA 타이거즈 제공>

담도 줄일 수 있다. 다시 한번 황동하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주흥철 기자

프로야구 올스타전 티켓 29일부터 선예매



KBO가 2026 신한 SOL KBO 올스타전 입장권 예매를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NOL(야놀자)에서 시작한다.

오는 7월10-11일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지는 2026 신한 SOL KBO 올스타 프라이데이와 올스타전 예매가 29일 오후 2시부터 NOL(야놀자) 예매 홈페이지(https://nol.yanolja.com/ticket)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NOL 고객센터(전화 1544-1555)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9일 오후 2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는 7월10일

열리는 올스타 프라이데이 입장권에 대한 선예매(전체 야구팬 대상, 선착순 7천매)가 진행된다. 올스타 프라이데이는 퓨처스 올스타전을 비롯해 KBO 리그 올스타 선수들이 펼치는 홈런레이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30일 오후 2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는 올스타 프라이데이 입장권을 2매 이상 구매할 예매자들에게 한해 11일에 개최되는 2026 KBO 올스타전 입장권 선예매가 가능하다. 일반 예매는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올스타 프라이데이와 KBO 올스타전 모두 예매가 가능하다. /주흥철 기자

또한, 올스타 프라이데이와 올스타전 당일에는 온라인 예매 이용이 어려운 관람객을 위한 현장 판매가 실시된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외국인은 1인 1매에 한해 제1매포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KBO는 올스타전 입장권을 예매한 팬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29일부터 7월1일까지 예매한 팬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올스타 팬 사인회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90명에게 선물한다.

당첨자에게는 1인당 2매의 참여권이 증정되며, 당첨자 발표는 7월8일 오후 6시 KBO 홈페이지 및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단, 당첨 후 예매 취소 시에는 팬 사인회 참여권도 취소된다. /주흥철 기자



"후반기 반등...팬 성원 보답"

광주FC, '뜨거운 팬심 가득' 오픈트레이닝 성료

프로축구 광주FC가 팬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하반기 반등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

광주는 지난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진행된 하반기 맞이 오픈트레이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

이번 오픈트레이닝은 하반기가 재개되기 전,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선수단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130여명의 팬들이 함께한 이날 광주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선수단 훈련을 팬들에게 전면 공개했다. 팬들은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

켜보며 박수와 응원을 보냈고, 선수단 역시 팬들의 응원에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이어갔다.

훈련 종료 후에는 이장규 감독과 주장 안영규를 비롯해 새롭게 합류한 신규 선수들이 차례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하반기 각오를 밝혔다. 행사 종료 후에는 사인회를 통해 팬들과 마지막까지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장규 감독은 "휴식기에도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휴식기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잘 보완해 하반기에는 더욱 좋은 경기력과 결과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한·중 생활체육 한마당 축제' 오늘 팡파르

산동성 동호인 방문...5개 종목 교류

한·중 체육인들이 전남에서 생활체육으로 하나된 국제 교류의 장을 펼친다.

전남도체육회는 25일 "28일부터 30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제28회 한·중생활체육교류 초청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허흥위 선수단장을 비롯한 중국 산동성 생활체육 동호인 등 62명이 참가하며, 배드민턴·탁구·테니스·농구·바둑 등 5개 종목에서 친선경기와 교류활동을 펼친다. 참가자들은 28일 열리는 환영연을 시작으로,

27-28일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생활체육 교류전에 참가한다.

이어 29일에는 문화탐방을 통해 전남의 아름다운 해안관광 자원과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같은 날 환송연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한·중생활체육 교류는 스포츠를 통해 양국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민간교류의 장"이라며 "이번 행사가 생활체육 발전은 물론 신뢰와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